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월드 타이머의 재해석

탁월한 컴플리케이션을 강조하는 그린 에나멜 다이얼과 핑크 골드 케이스

주요 특징:

- *그린 에나멜 다이얼로 새롭게 재해석한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 *워치메이킹의 우수성과 에나멜링 및 기요세, 래커 마감과 같은 진귀한 수공예 기법을 결합함으로써 독특하고 예술적으로 표현된 월드타임 컴플리케이션*
-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의 자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반영하여, 24 시간 동안 다이얼 주위를 한 바퀴 회전하는 유니버설 투르비용*

예거 르쿨트르는 창립 이래 긴 역사 동안 탁월한 컴플리케이션 기술로 명성을 얻었으며, 약 한 세기 동안 여러 시간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칼리버 948은 월드 타임 디스플레이와 24 시간 동안 다이얼 주위를 한 바퀴 회전하는 플라잉 투르비용(지구의 자전과 공전 반영)을 결합함으로써 유니버설 타임을 독특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합니다. 2024년 그랑 메종은 새롭게 재해석한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을 선보입니다. 이 타임피스에는 자연의 색채에 찬사를 보내며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노하우를 선보이는 그린 다이얼이 장착되었습니다. 18캐럿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를 갖춘 제품으로 2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됩니다.

높은 정확성의 전 세계 타임존

천문학에 기원을 둔 세계 타임존은 하루 24시간의 흐름은 지구 자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타임존은 세계 시간의 질서와 정확성을 위하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개념입니다. 19세기까지 모든 도시는 태양이 정점에 도달하는 정오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뒤이어 19세기 철도 시대의 서막이 오르며



표준화된 시간, 즉 특정한 지리학적 위치에서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글로벌 표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884 년에 개최된 국제자오선회의(International Meridian Conference)에서 런던 소재 그리니치 천문대(경도 0°)가 전세계 시간 계산의 표준이 되어, 경도 15° 단위로 정리된 24 개의 주요 시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하루는 그리니치에서 자정에 시작하고 끝나며 시간은 이곳을 기준으로 동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그리니치 표준시(GMT), 오전(ante meridian, am) 및 오후(post meridian, pm)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 탁월한 전통 공예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의 복합적이면서 풍부한 다이얼 컬러를 만들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장인들은 에나멜링, 기요세, 래커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하나의 다이얼을 완성하려면 총 70 시간 이상의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돌출된 윤곽'의 뜻을 지닌 샹르베는 약 2,500 년 전부터 시작된 고대의 특별한 에나멜 기법입니다. 장인은 뛰어난 기술로 먼저 원하는 이미지의 윤곽에 맞게 진귀한 메탈의 움푹한 부분을 파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의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여러 겹의 에나멜로 채운 뒤 매우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합니다. 세련된 매력을 더하는 에나멜 장인은 불투명 및 반투명 에나멜을 조합하여 대륙의 다양한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더 밝고 어두운 컬러 영역을 만듭니다. 칼리버 948 다이얼에는 10 겹의 에나멜 층이 필요하며 에나멜링에만 20 시간 이상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래커 처리는 장식할 표면에 여러 레이어를 수작업으로 코팅해야 하는 길고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먼저 투명한 광택 레이어를 만든 다음, 컬러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깊이감과 질감을 더하기 위해 반투명 래커를 최대 15 차례 코팅합니다. 각 코팅에는 정밀하게 제어되는 건조 공정이 필요합니다. 빛을 끌어당기고 컬러의 풍부함을 증폭시키기 위해 디스크를 폴리싱 마감하여 래커 처리를 완성합니다.

독보적으로 정교한 예술성을 통해 표현되는 시간의 세계



직경이 25.5mm 에 불과한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의 멀티 레이어 다이얼은 미니어처 예술 작품으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월드 타이머 전통을 유지하는 다이얼 중앙에는 북극에서 본 세계 지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륙의 경계는 18 캐럿 골드의 섬세한 플레이트에서 커팅하여 샹르베 에나멜로 장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평한 세계 지도와는 달리 핑크 골드 돔형 스켈레톤의 메인 다이얼 플레이트 위에 북반구의 경도와 위도로 이루어진 지도를 구현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정확한 레이저 커팅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복잡하고 섬세한 돔형 구조는 다이얼에 깊이감을 더해줌으로써 정교하게 얹힌 시간 측정 메커니즘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돔 아래, 바다를 표현한 반투명 블루 그린 래커로 장식된 다이얼 플레이트와 바다의 특징을 형상화한 물결 모양 기요세 패턴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센트럴 다이얼에는 모든 클래식 월드 타이머와 마찬가지로 그 주위를 둘러싼 그린 오팔린 링에 각 시간대를 대표하는 도시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도시 이름이 적힌 링의 외부에는 두 개의 동심원을 이루는 고정형 링이 장식되었습니다. 내부 링은 애플리케 직사각형 인덱스와 레이저 인그레이빙 숫자로 24 시간을 표시합니다. 외부 링에는 지도 및 바다 색과 조화를 이루는 다크 그린 래커 배경에 레이저 인그레이빙 미닛 트랙이 자리합니다. 지도 한쪽 측면에 보이는 원형 표시창을 통해 60 초 주기로 회전하는 플라잉 투르비옹이 바다 위에 가볍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투르비옹은 돔형 지도와 시티 링과 함께,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지구처럼 24 시간 주기로 360°를 회전하며 도시 이름 옆에 있는 링에 표시된 시간이 해당 도시의 시간대를 나타냅니다.

탁월한 칼리버를 갖춘 우아한 케이스

예거 르쿨트르의 칼리버 948 은 플라잉 투르비옹이 탑재된 세계 최초의 월드 타임 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또한, 예거 르쿨트르의 특허받은 유니버설 투르비옹은 평균 태양일 길이와 같은 24 시간 주기로 다이얼을 한 바퀴 회전합니다. 388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매뉴팩처에서 구상 및 개발, 제작되어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기술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리버 948 은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시계 작동이 매우 간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간은 전 세계 모든 시간대를 동기화하는 크라운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한 뒤 현지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크라운을 돌리면 분침과 초침은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되, 시침만 앞뒤로 한 시간씩 변경됩니다.

순수한 라인과 세련된 비율을 갖춘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케이스는 다이얼의 정교함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40 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된 오목한 베젤은 러그의 넓은 베벨과 대조를 이루며, 움푹 들어간 러그가 역동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마이크로블라스팅과 폴리싱, 새틴 브러싱 처리된 다양한 질감이 빛의 유희를 극대화합니다. 온기를 불어넣는 핑크 골드는 다크 그린 악어 가죽 스트랩과 어우러지며 다이얼과 세련된 조화를 이룹니다.

장엄한 그린 다이얼이 돋보이는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의 새로운 해석은 예술적 창의성과 정교한 메커니즘의 결합을 통해 혁신 정신과 전통 계승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그랑 메종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상세 정보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칼리버 948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크기: 직경 43mm x 두께 14.13mm

칼리버: 오토매틱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48

기능: 시, 분, 유니버설 플라잉 투르비옹, 24 시간 인디케이터와 월드 타임 디스플레이

진동 수: 4Hz (28,800vph)

파워 리저브: 48 시간

다이얼: 물결 모양 기요세 패턴 위의 반투명 그린 래커, 상르베 에나멜 장식의 동형 스켈레톤 구조

케이스백: 사파이어 크리스탈

방수: 5 바(bar)

스트랩: 블랙 악어 가죽, 폴딩 버클

제품 번호: Q52824E1 - 2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